

적박한 국내 환경운동계의 20년 베테랑 국민의 실천적 환경운동 급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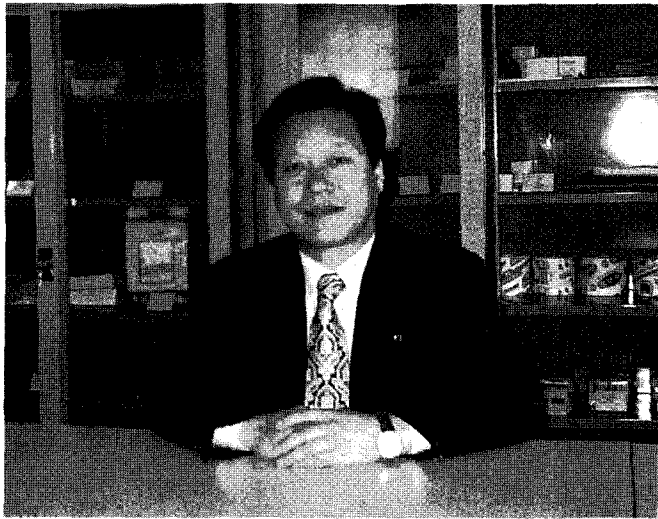
최 열 / (사)환경마크협회 회장

‘환경’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이내이다.

그러나 ‘환경’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 날부터 항상 제기되어 오는 문제이고 산업화 사회 이후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사)환경마크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최 열 회장은 현재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47세의 젊은 나이지만 환경운동이 반정부 운동으로 인식되던 20여년전부터 이 분야에 뛰어든 환경운동계의 베테랑이다.

최 회장은 (사)환경마크협회의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환경운동을 시작하던 20년 전의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다져 보았다고 한다. 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 최 열 (사)환경마크협회 회장

다던 최 회장은 먼저 (사)환경마크협회라는 조직과 그 업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환경마크의 장점과 이용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인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흔히 합성세제는 공해물질이고 비누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이라는 식의 단순한 구분이 소

비자들 사이에 만연한데 최근 품질이 개선된 합성세제의 경우 오히려 비누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런 단편적인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올 하반기부터 세제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는 등 많은 연구 및 실천을 통해 엄정한 기준을 확립,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활로를 넓혀주고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품은 환경마크를 부여하지 않아 환경마크에 대한 인식과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마크 상품이 재활용된 상품이므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즉, 생활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환경마크의 부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첨단 과학기술이나 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최 회장은 "이 자연은 우리 후세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당한 만큼의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인간은 자연의 자체 정화능력 내에서의 활동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런 점을 간과한

다면 자연은 인간에게 커다란 댓가를 요구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95년 미국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 상은 개인의 상이 아니라 한국의 환경운동이 받은 것이라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다. 우리 숲이 되어 지키자'라는 문장을 인용해 한 개인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으나 한 개인인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념적인 관심이 아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회원이 되어 정보수집 및 실천을 통한 환경운동의 숲을 이룰 때 건강한 선진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실천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농민운동을 해온 부인과 중학교 2학년이지만 부모의 영향 탓인지 지금까지 한번도 샴푸, 린스를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딸과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최 회장은 딸이나 또래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느낄 때 환경운동가로서의 보람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느낀다고 한다.

평생토록 환경운동의 한길을 가겠다는 다짐으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지켜내어 결국 작은 결실들을 거두어 가고 있는 최 회장이어서 21세기 선진사회로 가는 먼 길에 다가서는 푸른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 [K]